

업데이트: 린 로빈슨 벨뷰 시장은, 타인에게 해를 입힐 의도의 무기 소지를 벨뷰 특정 지역에서 금지하는 기존의 민간 비상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규 명령](#)으로 무기소지 금지 영역이 현행 통행금지령 영역을 넘어선 지역까지 확장되며, 시내 기타 상업 및 업무시설 구역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금지된 무기 및 활동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명령은 5월 31일에 발령된 [시 민간 비상사태 선포](#)가 종료될 때까지, 혹은 그 이전에 종료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린 로빈슨 벨뷰 시장은 대중의 소란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6월 1일 오후 5시부터 6월 2일 오전 5시까지 벨뷰 다운타운 지역 내의 통행금지령을 재차 발령하는 [비상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통행금지령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법집행관 및 기타 응급대처요원, 공무원 및 허가받은 대중매체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공공용지, 공원, 그리고 서쪽으로는 100가 애비뉴 노스이스트, 남쪽으로는 메인스트리트/사우스이스트 퍼스트 스트리트, 동쪽으로는 120가 애비뉴 노스이스트/노스이스트 퍼스트 스트리트, 북쪽으로는 노스이스트 12가 스트리트으로 대략 경계지어진 공공 장소(통행금지령 지도 참조)에 입장하거나 머무는 것이 금지됩니다.

일반 통행금지령은 직장에서 또는 직장으로 직접 통근하는 사람,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하는 사람, 본인 또는 가족/가정 구성원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벨뷰시는 어제 다운타운 지역의 시위가 공공기물파손자 및 약탈자들로 인해 전 지역에 걸친 재산 피해 및 절도 행위로 격화된 이후 [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시장은 또한 통행금지령 구역 내의 [무기소지 금지 민간 비상령](#) 또한 발령하였습니다.

벨뷰시는 사업자들이 통행금지령 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창문과 입구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벨뷰시 경찰과 주 방위군이 배치되어 움직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기타 기관들도 지원하도록 대기 중입니다.